



낙농진흥회
KOREA DAIRY COMMITTEE



2018 IDF 연차총회
조직위원회 사무국



신뢰와 상생의 낙농 청사진, 낙농진흥회 이창범 신임 회장

고객홍보팀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에는 소중한 이웃이 있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낙농진흥회, 그리고 축평원 본원의 사육이 나란히 있지요. 그중 낙농진흥회(이하 낙진회)가 새로운 수장을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래 공직생활을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이창범 회장입니다. 신임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또 앞으로 낙진회가 어떻게 거듭나게 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임 초라 바쁘실 테지만 이웃사랑 실천을 기대하며 인터뷰를 요청해 보았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축산국장 재직시절 축병원의 이사를 역임하셨는데, 이렇게 이웃의 기관장으로 뵈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낙농진흥회 이창범 회장(이하 이) 네, 축평원이나 낙신회 모두 축산국장을 하며 이사로서 연을 맺었지요. 그래서인지 낙신회 수장 역할을 맡게 된 것에 대한 감회도 남다른데요. 특히, 산적한 낙농 현안을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회장직을 수행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임 회장님들께서 낙신회를 잘 이끌어주신 만큼 저 역시 더욱 신뢰와 믿음을 주는 기관,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기관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축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그래도 혹시 모르고 있을 독자를 위해 낙신회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이 낙신회는 1999년 낙농진흥법에 의거해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국내 낙농 산업과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우유와 유제품의 수급과 가격 안정, 낙농산업제도와 유통구조 개선, 국산 원유 품질 향상 등이 있습니다.

축 수급과 가격 안정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셨는데, 이게 조금 독특합니다. 축산물수급조정 위원회를 보면 다른 축종은 모두 생산자 단체장이 협의회 위원이 되는데, 낙농만 낙농진흥회장이거든요.

이 낙농은 수급이 생명입니다. 젖소는 우유

생산을 시작하면 중단할 수가 없어요. 생산을 중단하면 소가 망가지거든요. 사장 공급 방식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집유 주체에 의해 좌우되죠. 그렇기에 낙농 산업의 세 축인 낙농가와 유업체, 소비자 간의 상충되는 이해와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낙농 분야의 컨트롤타워로서 낙신회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축 근데 그 수급조정이 지난해 낙신회의 큰 현안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압니다.

이 네, 우리 낙농은 짧은 역사 속에도 생산성과 위생·품질 면에서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해왔습니다. 이는 산업종사자들의 땀과 열정 덕택이지요. 반면 단기간에 압축 성장한 만큼 문제점과 현안도 안고 있는 게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만성적인 원유수급불균형, 소비와 무관한 원유가격결정체계, 취약한 국제 경쟁력, 시유 소비위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중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이 효율적인 원유수급체계의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급이 흔들리면 낙농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그렇기에 현재 각각의 집유주체가 관리하는 원유쿼터를 하나로 통일해 운영하는 '전국단위쿼터제'가 꼭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해당사자 간 오랜 논의를 통해 전국단위쿼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토대로 낙농가는 안심하고 우유를 생산하고, 유업체 역시 안심하고 우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수급안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제가 취임하며 그린 청사진입니다.

우리 낙진회도

산업 종사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상생발전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낙진진흥회 캐릭터
우유친구 포미

축 들어오다 보니 우유 소비 홍보를 위한 송장년층 대상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소비 확대를 위한 사업도 같이하시는 거죠?

이 저출산에 대체음료까지 늘며 우유 소비량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수급만 줄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유는 싸면서도 영양상으로 우수한 완전식품입니다. 우유에 대한 근거를 알 수 없는 말들이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최근 해외 연구 결과, 우유와 유제품이 체중관리, 혈압,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확인됐지요. 이렇게 좋은 우유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는 낙농자조금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낙진회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 그리고 보니 화장님이 축산국장으로 계실 때 대송국 유제품 수출이 처음 시작됐죠?

이 네, 당시 시장 개척을 위해 유가공업체 시장단과 몇 차례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중국은 특히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국 유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요, 유가공 제품 수출을 많이 하고 백색 시유 또한 유통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청도를 통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유 기준 일평균 수출량 30톤 규모, 전체 유제품으로는 50톤 정도입니다.

축 2018년 국제낙농연맹(IDF, 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연차총회가 국내에서 개최됩니다. 낙진회 회장으로 취임하며

IDF 한국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시게 되어 대규모 국제 행사를 치리아 한다는 충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 오는 2018년 10월 대전에서 개최되는 IDF 연차총회는 매년 52개 회원국의 다양한 전문가 2,000여 명이 함께 모여 총회, 학술 컨퍼런스, 전시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며 낙농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낙농 올림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낙농 역사상 최초이자 최대의 국제행사라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낙농산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앞으로 개최일까지 1년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올해는 행사 프로그램 구성 및 대외협력 체계 구축, 국내외 홍보강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 끝으로 축평원에 바라는 점, 혹은 KAPE누리를 통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업무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축평원과 낙진회는 공정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산업 발전과 소비자 신뢰를 추구하는 공익기관이나 다름없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축평원이 앞으로도 옳고 공정한 자세로 축산물 생산·유통·소비단계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낙진회도 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산업 종사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상생발전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낙농가족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